

『유럽한인 100년의 발자취』는 유럽에 자신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오늘을 일구어 낸 유럽한인들의 생생하고 소박한 기록이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주의 역사”에는 언제나 그들만의 애환을 담고 있다. 새로운 세상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는 작업은 언제나 험난하고 고단하였기에 『유럽한인 100년의 발자취』는 유럽한인 그들의 질박한 삶을 꾸밈없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한인 100년의 발자취』에는 그들의 애환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의 유럽 한인사회를 건설한 유럽한인 그들만의 신화도 함께 펼쳐진다.

제 1권: 일제강점기하의 유럽한인 • 독일

영국 • 프랑스 한인사회
제 2권: 그리스 • 네덜란드 • 룩셈부르크 • 벨기에
스위스 • 스페인 • 아일랜드 •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한인사회

제 3권: 노르웨이 • 덴마크 • 루마니아 • 불가리아
체코 • 크로아티아 • 터키 • 폴란드 • 핀란드
헝가리 • 유럽한인총연합회

대한의 광복과 근대화의 마중물로,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숨결로 100년을 한결같이 살아온 유럽의 한인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돌고 돌아가는 것이 인류역사라고 했습니다. 본래 하나인 정(正)이 둘로 나뉘어 분(分)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되어 합(合)을 이루며 조화를 이루는 과정의 연속이 인류사라고 합니다. 산처럼 바다처럼, 바람같이 살아온 100년의 타향살이 동안 대한의 광복을 열망했고, 근대화의 역군으로 그리고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혼을 간직하며 100년을 한결같이 살아온 자랑스런 유럽의 한인들입니다.

조국의 독립과 근대화 그리고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세계화를 이뤄낸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유럽한인사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한 부분이며, 앞으로 다가오는 유럽한인 100년의 발길은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내는 데에 특별한 역할을 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나라 간의 국경은 큰 의미가 없고, 종교간에는 문호가 개방되고, 세계한가족을 이뤄 살아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유럽내 40여개 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살아가는 유럽한인들은 다가올 세계인의 모델이 되고, 유럽 100년의 역사 속에 별처럼 수놓아 살다 가신 선조들의 삶을 교훈 삼아 앞으로 다가올 100년의 희망을 키워갈 것입니다.

유제현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발간사 가운데



유럽한인

100년의

발자취

-3-

1919
2019



1919~2019

100 YEARS OF KOREAN
DIASPORA IN EUROPE

노르웨이 • 덴마크
루마니아 • 불가리아
체코 • 크로아티아 • 터키
폴란드 • 핀란드 • 헝가리
유럽한인총연합회

유럽한인총연합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Europe



‘유럽한인100년사’ 편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1919년부터 시작된 100년의 유럽 한인 역사를 각계각층의 명망 있는 위원들이 모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드디어 ‘유럽한인 100년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유럽한인100년사’는 자라나는 차세대 동포들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주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1919년 11월 19일, 35명의 한인들이 프랑스 스위스에 첫발을 내딛으며 유럽 한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선조들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후손들을 위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독립운동 동참 및 자금 지원, 한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동포사회 활동 등 이민 후손들에게 모국의 소중함과 민족의식을 일깨워주신 선구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축하 가운데

그동안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재외동포총서를 간행해 왔다. 물론 이 가운데는 유럽한인의 역사가 두 책으로 간행되었고, 연표 등도 별도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2013년도에 간행된 이 작업은 서유럽 6개 국가(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중심으로 하여 기록된 책이었다. 이 상황에서 “유럽한인100년사”가 간행되었다. 새로이 간행된 이 책에서는 서유럽은 물론이고, 북유럽과 동유럽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터기 지역 한인의 역사까지도 망라되어 있다고 한다.

이제 유럽의 한인들은 자신들이 걸어온 지난날 1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역사적 기억을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전개될 또 다른 100년을 전망할 힘을 키워나 가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유럽의 한인 동포들이 이렇게 일구어낸 문화적 힘은 한국사회와 문화의 발전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즉, 유럽이라는 지리적 공간에 생활하고 주재하는 동포들은 그 지역과 사람들이 형성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국의 동포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그 문화적 전파력은 우리 한국사회와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해주고 우리 문화의 발전을 전인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축하 가운데



01

터키 소개 166

1. 한국과 터키와의 관계
2. 한국전 파병과 기억의 장소

02

한인사회의 형성과 발전 174

1. 태동기
2. 도약기
3. 발전기

03

교육기관 및 연구자 180

1. 한글학교
2. 한인 유치원
3. 터한문화교류협회 한국어 과정
5. 앙카라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4. 세종학당
8. 이스탄불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6. 에르지예르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10. 연국자 목록
7. 보아지치 대학교
9. 이스탄불 아이든 대학교

04

한인사회의 제 단체들 185

1. 터키 한인회 총연합회
2. 참전용사기념사업회
3. KOWIN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5. OKTA
4. 기업인 연합회
7. 한인 카톨릭 교회
6. 이스탄불 한인교회

05

문화와 스포츠 교류 188

1. 지진 구호 봉사활동
2. 터한문화교류협회
3. 한터 친선 «10월의 어느 멋진날» 음악콘서트
4. 주터키 한국문화원
5. 2013년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7. 스포츠
6. 한국전쟁 영화 «아일라»

06

터키 진출 한국기업들의 주요활동 성과 197

1. 한인 사업체의 발전
2. 제3대교
3. 아브라시아 터널
4. 차낙칼레 1915교

표로 보는 터키 한인역사 표로 보는 터키 한인역사 202





터키 한인사회



01

터키 소개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잇고 있는 나라로서 국토면적 783,562km² 남한의 약8배, 한반도의 4배, 인구 8,315만 4,997명^{2020년 기준}의 큰 나라이다. 주변의 터키계 민족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약 1억5천에 달한다. 지정학적으로 두 대륙 사이에 위치하여 다양한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국토 전체에서 다양한 시대의 여러 고대 유적들이 현재도 남아있다.

터키족은 중앙아시아에서 서진을 계속하여 1453년 급기야 오스만투르크족이 콘스탄티노플^{현, 이스탄불}을 함락하게 되고 이어 북아프리카, 동유럽, 중동, 중앙아시아를 잇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화려한 오스만 제국의 문화를 꽃 피우게 된다. 1차 세계대전 이후 1923년 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ürk, 1881-1938}에 의해 첫 공화정이 설립되었다. 종교는 이슬람으로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언어는 터키어로서 한국어와 동일한 우랄 알타이어계에 속한 언어로서 첨가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음식 문화는 중국, 프랑스 음식과 더불어 세계 3대 요리에 속할 정도로 유명하다. 산업은 농업과 관광업이 주를 이룬다. GDP는 743,708US달러^{2019년 10월 기준}로서 19위를 기록하고 있다.

1. 한국과 터키와의 관계

양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은 1957년 3월 8일에 이루어졌고 같은 해 3월

에 앙카라 대사관의 공관 개설이 이루어졌다. 현재 제 23대 최홍기 주 터키 대사가 재직 중이다.

이스탄불 총영사관은 한국 수출 시장으로 큰 잠재력을 지닌 터키와의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기 위하여 터키의 경제, 문화, 언론 등의 중심지인 이스탄불에 총영사관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여 대통령 재가^{1977. 6. 8}로 1977년 12월 12일에 최초 개설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기구 축소를 통한 예산 절감하고 조직의 적정 규모화를 기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7개 공관 폐쇄 결정^{1981. 10. 17}에 따라 1982년 2월 28일자로 폐쇄되었으나, 이스탄불 거주 동포 및 이스탄불 방문 한국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스탄불 지역 투자 및 경제, 통상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007년 1월 15일에 재개설되었다. 현재 제8대 장연주 총영사가 재직 중에 있다.

1) 양국 정상들의 방문

2005년 4월 14-17일 노무현 대통령이 터키를 공식 방문하였다. 이는 1957년 양국의 수교 이후 국가원수로서는 최초의 방문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아흐메트 네즈데트 세제르^{Ahmet Necdet Sezer}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협력을 비롯한 관계증진, 한반도와 동북아 및 이라크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두 정상은 최초인 노무현 대통령의 터키방문이 두 나라 관계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함을 표명하고, IT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이스탄불에 한, 터키 IT 협력센터를 설립키로 합의하였다.

2010년에는 터키 압둘라 귄^{Abdullah Gül} 대통령이 한국



노무현 대통령 국빈방문 (2005년)



전쟁 60주년을 맞아 타네르 이을드즈Taner Yildiz 에너지자원 장관, 터키상공회의소연합TOBB¹⁾, 대외경제위원회DEIK²⁾, 터키수출위원회TIM³⁾를 포함한 약 70명의 비즈니스 업계 주요 인사들과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2010~2012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원전협력 양해각서 등 4개의 협정 및 양해각서가 서명하였다.

겔Gül 대통령 내외는 서울에서의 공식 일정 이후 한국전 참전 터키 장병 유해 462기가 안장돼 있는 부산 UN 묘지를 참배하였는데 터키 주요 언론은, 터키 대통령으로서는 28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겔Gül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역사적 우호관계에 있는 양국 간 정치, 경제 및 투자 관계가 향후 더욱 증진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2012년 2월 4일에는 4일간의 일정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터키를 국빈 방문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방문에서는 «한-터키 CEO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고, 자페르 차을라얀Zafer Çağlayan 터키 경제부장관, 리파트 히사르츠클로홀루M. Rifat Hisarcıklıoğlu 대외경제위원회DEIK 회장 등 터키 경제인 20여명과 홍석우 지경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 경제인 20여명이 참석하였다.

2018년 5월 2일에는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an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빈 방한한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

-
- 1) TOBB : Türkiye Odalar ve Borsalar Birliği; Union of Chambers and Commodity Exchanges of Turkey,
 - 2) DEIK : Dış Ekonomik İlişkiler Kurulu; Foreign Economic Relations Board
 - 3) TIM : Türkiye İhracatçılar Meclisi; Turkish Exporters Assembly

담에서 채택한 한·터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
해 남북이 한반도에 더 이
상 전쟁이 없을 것임을 천
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와 협력 하에 평화와 번
영, 공존의 새 길을 열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반도, 동북아, 나아가 전 세
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한 터키의 확
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화답했다.

또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교역의 균형적인 확대를 통해 호
혜적 경제협력 증진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며, 한·터키 FTA의 틀 내에
서 서비스투자협정을 조속히 발효시켜 나가기로 했다.

2. 한국전 파병과 기억의 장소

1) 한국전쟁 파병

터키는 한국전쟁에 제28사단 제241연대 1개 여단을 편성했으나 병력
모집 5000명을 초과한 1만5000여 명이 자원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여단은 3개 보병대와 1개 105밀리 곡사포대대, 그리고 그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10월 17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1953년 7월 종전시까지 군우리전투
1950.11.26-30, 장승천 전투1951.4.22-23, 금량장 및 151고지 전투1951.1.25-27,
네바다 전초전1953.5.28-29을 치르며 승전을 거두었다. 터키는 두 번째로 많
은 병력인 1만 4936명이 참전해 724명 전사, 포로 217명, 실종 166명, 부

상 2176명으로 나타났다. 정전 후에 1개 중대를 제외하고 1954년에 모두 철수하였고 66년에는 의장대 1개 분대만 남아 있다가 71년에 모두 철수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57년 3월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73년 앙카라에는 한국공원, 77년 여의도에 앙카라공원을 개원하였고 수원의 한국인 고아원이었던 앙카라 학원과 용인의 터키 참전비를 통해 양국 간의 우호를 지속적으로 기념해 오고 있다.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터키군 관련 기념물로는 경기 용인에 있는 참전 기념비, 부산유엔기념공원에 기념비가 2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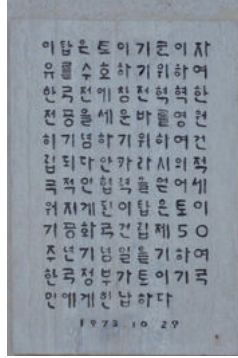
2) 한국공원

수도인 앙카라 중앙역 **Ankara Gari** 근처에 위치한 한국공원 **Ankara Kore Şehitleri Anıtı** 은 서울시가 1971년 8월 앙카라시와 자매결연을 한 후, 터키가 6·25 때 UN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을 기리며 조성한 공원이다. 공원 바깥 담장에는 태극기와 터키국기 문양을 번갈아가며 새겨 놓았다.



서울시에서는 1973년 11월 터키공화국 수립 50주년에 맞춰서 이곳에 한국공원을 조성하여 앙카라시에 헌정했는데, 매년 6월 25일 터키주재 한국대사관과 터키 참전용사협회에서 6·25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한국 터키 간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쟁 동안 전사 721명, 부상 2147명, 실종 175명, 포로 346명이 희생되었는데, 한국전 때 희생된 터키 병사들은 그동안 다른 외국인 희생자들과 함께 부산의 UN군 묘지에 안장되어 있다가 앙카라에 한국공원 조성 후 유골들 일부를 채취하여 한국공원으로 이장하였다. 기념탑은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을



양가라공원에 있는 참전 기념비

이미지화했다고 하며, 기념탑의 기반부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제단을 설치했다. 기념탑으로 올라가는 계단 오른쪽에는 한글로 '한국참전 토이기 기념탑'이라고 새겼으며, 그 위에는 한국전에서 희생된 터키 병사들의 이름과 계급, 출생연도, 사망 일자 등이 기록된 명단을 새겨 두었다.

3) 터키군 참전 기념비

터키군은 한국전 당시 3개 보병여단을 파병해 김량장 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이에 1974년 국방부가 마성IC 인근에 터키군 참전 기념비를 세웠고 현재는 용인시가 관리하고 있다.

이종수 제1부시장은 6·25 전쟁 당시 터키군의 활약으로 김량장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전세를 역전해 남하하던 중공군과 인민군을 격퇴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김량장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려 3천여 터키군 용사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임을 전했다.

4) 영원불망의 송덕비

한국전쟁에서 터키군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영원불망기념비는 육군26사단 사령부에 위치해 있다. 건립일자는 단기4287^{1954년}10월 10일로서 건립자는 명예교장 박승훈, 대성중학교 설립



터키군 참전기념비 (용인)



자 및 교장 김원찬으로 되어 있다.

2007년 터키 수교 50주년 3월 8일의 해를 맞아 주한 터키무관 파흐레틴 아이든 *Fahrettin Aydin* 대령과 백상기 주한터키 대사관 명예고문이 사단을 방문했다.

기념비의 유래는 1953년 교직원 8명에 의해 천막교실로 문을 연 대성고 등공민학교는 다음 해인 1954년에 대성중학교로 승격했는데 이때 도로를 만들고 교실을 신축하고 학생들에게 급식도 제공하면서 학교가 운영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주둔 터키군에게 김원찬 교장과 지역주민들이 정성을 모아 1954년에 건립한 송덕비이다.

앞면과 오른쪽 면에는 한글로 도와 준 터키군들의 이름과 건립 경위 등이 한글과 터키어로 적혀있다. 이 송덕비의 의미는 전투와 관련된 기념물이 아닌 순수 주민 자체적으로 마련된 민간교류를 증명하는 기념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터키군의 퇴진과 함께 운영난으로 결국 대성중학교는 폐교하였으나 기념비는 1992년 군 유물로 사단에 보관되어 있다.



5) 여의도 양카라공원

지하철 9호선 샛강역 3번 출구에서 100여 미터 거리, 일명 «양카라공원»이다. 1971년 8월 23일 서울시와 앙카라Ankara, 터키 수도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이를 기념하여 1977년 5월 1일 개원한 공원이다.



6) 수원 양카라학교

한국전쟁 당시 터키군은 1개 대대병력을 수원시 서둔동 지금의 농촌진흥청에 주둔한 뒤 1952년 고아원인 양카라 학원을 세워 터키군은 휴전 이후인 1960년대까지도 전쟁고아 640여명을 돌보는 등 인도적 지원활동을 펼쳤다.

이에 수원시는 터키군이 주둔했던 자리에 기념비를 세웠고 2012년 11월 서둔동 옛 서울농대 앞 서호동로에서 서호초등학교 방향 약 450m 구간에 대해 «양카라 길»이라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

2013년 4월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의 협조를 받아 양카라학교와 서호동로 사이 골목길 180여m에 벽화작업을 했고 최근 2천538㎡ 크기의 양카라학교공원을 완공하게 됐다. 백상기 고문은 지자체가 나서 터키 군인들의 박애 정신을 기리는 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기념지로 잘 육성하고 있어 매우 뜻 깊다고 말했다.



한인사회의 형성과 발전

1. 태동기 : 1949-1988년

고대 한민족과의 인연으로는 고구려와 함께 중국 당나라를 대항해 싸웠던 돌궐족으로도 알려져 있다. 현대사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NATO 가입을 계기로 한국전에 참전하게 된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력으로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총 3천 216명의 사상자를 낸 혈맹국이며 중공군의 개입 시에도 끝까지 남아 용맹을 떨쳤던 군대로 기억되고 있다.

1957년 한국은 이슬람 국가 중 최초로 터키와 수교를 맺고 미국, 대만에 이은 세 번째로 재외공관을 수도 앙카라에 대사관을 개설하였고 1977년에 영사관을 개설했다가 2007년도에 재개설하게 된다.

최초의 교민은 1932년 한국에서 양복점을 열었던 터키인 가게에서 일하던 박재성씨인데 1949년 2월 터키로 와서 정착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1956년 한국전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던 백상기씨가 박사 과정 유학생으로 정착하였다. 1966년에는 박원탁 교수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같은 해 서재만 교수가 입국하여 1973년 국립 앙카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 나주환 5단과 이영 4단이 터키 스포츠 협회의 요청으로 대한유도회에 의해 파견되었다. 이후 1973년에 태권도 전 국가대표 사범으로 조수세씨와 1974년 한국 문화예술인이 활약하였고 태권도는 터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다.

최초의 경제활동으로는 1972년에 영국에서 활동하던 병아리 감별사 김 영기씨가 터키 현지회사에서 근무하였다. 1980년대에는 KOTRA가 들어온 후 기업들 중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1984년에 대외무역관을 설치하였고 대우종합상사, 효성, 카스, 현대, LG 등의 기업들이 진출하게 되었다.

개인사업으로는 1980년부터 중동 지역에 있던 한인들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그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86년부터 윤여행사와 서울정이 개업하면서 최초로 한국인 관광이 시작되었다.

교민들의 초기 정착은 개인적인 이유와 한국전쟁과의 인연, 유학생 신분으로 시작되었고 그 후 70년대에는 유도와 태권도, 한국 문화 예술인들의 문화적인 진출과 병아리 감별사로 현지 회사에 취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 초반에는 근처 중동권에서의 교민 이주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개인사업들이 시작되었고 80년대 중 후반 KOTRA 진출 이후 기업들의 진출과 관광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을 통해 한인사회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어져 갔다.

* 최초 재^在 터키 한인들

1) 박재성

최초의 터키 거주 한인은 박재성 ^{샤밀}박씨로서 근대 한국 최초의 무슬림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때, 중학교를 중퇴한 후 경성에서 터키인 아브뮐 하크 누만 ^{Abdülhak Numan}이 하던 알타이 양복점에 취직해서 누만 사장에게 신용을 얻고 양복 재단 기술을 배웠다. 사장이 자식 없이 일찍 죽자 양복점을 물려받고 과부가 된 사장의 아내와 재혼하면서 이슬람으로 개종해 샤밀



Shamil이란 이름을 얻었다.

1949년 2월 터키로 가서 귀화해서 살았는데 불행이도 첫 부인과 곧 사별하게 되고 다시 일본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도 사별로 끝나게 되었다. 전처에서 남매를 둔 박용은 다시 터키 여인과 재혼하게 되고 후에 이스탄불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경영하였다.

샤밀 박으로 불리는 박용은 한국인 특유의 강인한 도전과 노력으로 포목점을 경영하면서 터키에서 어려운 생활을 개척해 나갔다. 2002 한일 월드컵 관련 당시 터키 방송에서도 나온 바 있다.

2) 백상기 고문

두 번째 민간인으로 터키에 들어온 사람은 백상기씨이다. 한국전 때 터키 사단에 통역관으로 배치되어 활동하다가 1956년 터키 정부 장학생으로 터키 유학길에 오른다.



1961년 앙카라 대학교 정치대학 외교과를 졸업하고 1963년 앙카라 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을 이수하였다. 이후 1966년부터 외무부 소속으로 주 앙카라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였고 1981년에는 주 앙카라 한국대사관 정무 참사관을 지내고 89년부터 한터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자문과 1995년부터 현재까지 주한 터키대사관 명예고문으로 활동 중에 있다.

백상기 고문은 처음 파견된 여단에 배치돼 터키 참전군과 함께 1950년 11월 평안남도 군우리전투에 참가했다. 이 전투에서 그는 천막에서 나오자마자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오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어렵사리 터키군이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탔지만 사망에서 날아드는 총알로 버스 안에 있던 터키

군 절반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을 겪기도 했었다. 우리 나라 국민들 모두가 터키군의 용감함과 박애정신을 잊지 말아주길 당부한다.

3) 박원탁 교수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국립 앙카라대학교 혁명학 박사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한국 외국어대학교 터키 아제르바이잔어과 명예교수, 전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외대 아프리카문제 연구소장, 11대 국회의원, 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을 역임하였다.

4) 서재만 교수에 터키 국가최고 공훈메달

1966년 터키로 유학을 떠난 서 교수는 터키 국립 앙카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73년 한국에 돌아온 뒤 한국터키학회를 만드는 등 32년 동안 터키 연구를 계속해 왔다. 서 교수가 편찬한 국내 유일의 터키어 사전은 처음 터키어를 공부할 때부터 20여 년간 메모해 둔 수백 장의 단어장을 모아 1988년 출간되었다.



서재만 교수

2005년 한국외국어대 터키어과 재직 시 서 교수당시 65세는 터키어 교육과 터키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터키 정부로부터 «국가최고 공훈메달Distinguished Service Medal»을 받았다.

5) 태권도 조수세 감독

1972년에 이스탄불에서 친선 시합을 보이고 73년대에 전前국가대표 터키 태권도팀 감독으로 한국에서 부임하여 터키의 유도 태권도 연맹 소속으로 활약하게 된다. 터키의 61개주 중 37개 주에서 3만 명의 군인, 경찰, 민간인



들에게 시범 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접 자신의 도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84년 북사이프러스 공화국 이름으로 기념우표에도 등장하였다. 그의 대국민 영향력은 우표에도 등장할 만큼 놀라운 것이었는데 이후 터키에 태권도가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2. 도약기 : 1989년 - 2012년

1988년에 한글학교가 시작되고 1989년도에 한인회와 한인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조직을 갖추게 된 한인사회는 그 이후 양적, 질적성장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였다.

또한 터키 사회 내에서도 1989년 수도인 앙카라에 국립 앙카라 대학교에 최초로 한국어문학과가 신설되었고 2000년에는 카이세르에 국립 에르지에스 대학교에 한국어문학과가 신설되었다.

한국전을 계기로 관계를 맺게 된 양국은 다시금 2002년 한·일 월드컵 3-4위전에서 터키가 3위를 차지하게 된 이후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금 새롭게 한국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2000년 초반 이후 점차적으로 한류 드라마와 음악 등의 문화적인 콘텐츠스를 통해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한국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가 커져갔고 2002년부터 시작된 터-한문화교류 협회의 참전 용사 및 다양한 학술,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양국 간의 다양한 학술, 문화교류가 진행되어졌다.

또한 한류의 확산과 더불어 교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하며, 1990년부터 섬유사업이 시작되었다. 기업의 경우 현대차는 2006년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 분야에서도 한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경제 분야에서 많은 정부 표창장 수상자들이 나온 시기이기도 하다.

3. 발전기 : 2013년 - 현재

2000년대 초반부터 확산되어진 한류 붐과 문화 교류 활동, 터키 내 교민들의 활동, 기업들의 노력과 성과로 인해 현지에는 다양한 한류 문화 관심자들과 문화 콘텐츠 사이트들이 늘어가게 되었다.

2013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양국 간의 화합과 문화적 교류에 정점을 찍게 된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세계적인 관광지역인 아야소피아 박물관 앞에서 개막식을 갖고, 정홍원 국무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국무총리, 김관용 경북지사, 카디르 톱바쉬 이사탄불 시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국간 총 400억 예산의 대규모 행사로서 23일 동안 46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엑스포의 여파로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꽃을 피우게 되었는데, 특히 2016년 터키의 가장 역사 깊은 명문대인 이스탄불 대학교에 한국어문학과가 설립되었으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보스포루스 해협의 제 3다리, 유라시아 터널, 차낙칼레교^橋 등의 초대형 건설 수주를 따내는 등의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또한 꾸준한 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2018년 한해 16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등 터키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깊은 유대의식 속에 드디어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가까운 나라로서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본격적인 유대관계와 협력관계가 꽃을 피우고 있다. 2017년 쿠데타와 테러 등의 불안정

터
키

한
인
사
회



한 정세 속에서도 교민들의 숫자는 꾸준히 늘어 현재 2020년 초반 약 3천2백 명 정도로 추산된다.

03

교육기관 및 연구자

1. 한글학교

터키에 최초로 신설된 한글학교는 이스탄불 한글학교이다. 이스탄불에 한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관계로 자녀들에게 한국어와 역사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자 토요 한글학교 개설을 위하여 최덕삼 한인회장이 노력하였다.

초기에는 이스탄불 유니온 교회 부속건물에서 임대료 없이 1988년 2월 1일부터 학생 25명과 교사 4명이 시작하게 되었다. 자문의원으로는 한인교회, 상사협의회, 코트라, 학부모 4명 **최덕삼, 윤대우, 김대균, 김주찬**으로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규정상 윤 여행사 직원 명의로 사르예르 구청과 임대계약을 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던 보건시설이 낙후되어 사용하지 않는 것을 한인회 한글학교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김상진 한인회장이 구청의 협조를 받아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학생들이 줄어도 학교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

역대 유럽 한글학교 교장은 다음과 같다.

초대 최덕삼 **1988-1990**, 2대 조용성/ 이승수 목사 **1991-1993**, 3대 교감 박남희 **1993.2-2000**, 4대 윤경웅/최덕삼/김성렬 **1994-98**, 5대 박남희 **1998.6-2000.9**,

6대 배종옥 2009.9-2004, 7대 김상진 2004-2006, 8대 서해숙 2006-2010, 9대 사공심(유럽) 2010-2014, 10대 고명순(유럽) 2014-2019, 11대 김영선(유럽) 2019-

역대 아시아 한글학교 교장은 다음과 같다.

이영이 2005 10-2007 08, 조신호 2007.09-2014 08, 홍철우 2014.09-

한인들과 기업 그리고 한국정부의 지원금으로 교실을 수리하고 확장시켜 한글학교를 운영하다가 학생 수가 늘어 터키 학교 Turkan soray orta okulu 에서 수업하게 되었다. 한글학교가 사용하던 장소는 한인들의 진학 전 아동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유치원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2020년 현재 교장 김영선씨와 학생 130명, 교사 18명으로 고1 과정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스탄불 아시아 한글학교의 경우 2005년부터 양소영, 김병철씨 등 몇 가족과 교사 1인을 중심으로 시작되다가 그 해부터 이영이 초대 교장과 함께 IGA 학교 건물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시아 세종 한글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2020년 현재 홍철우 교장이 학생 80명, 교사 13명이 수업 중에 있다.

2004년 2월 28일에는 앙카라 갈라디아 한글학교가 개교하여 11월 22일에 등록하였다.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아시스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문화체험과 과학 교육 패키지, 외부 강사 초청 강연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현재 박종이 교장이 선임되어 있다.

1998년경에 시작된 이즈미르 İzmir 한글학교는 초기에 교장 없이 학부모들이 함께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주식회사 미주 사장 김재수 사옥에서 진행하다가 인터넷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현재 김용기 교장과 30여명의 학생이 있다.

2. 한인 유치원

이스탄불 한글학교에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며 취학전 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한글학교가 터키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한 후에 한글학교



자리에서 사설로 유치원이 운영되었다. 유치원 운영자의 사정으로 한글학교 교장선생이 유치원을 임시로 대신 운영하다가 2016년 중반에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에 김현옥 선생이 한인유치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전체 시설을 수리하여 한인 유치원 원장으로, 2016년 9월부터 2020년 현재는 김현향 원장이 터키 한인 유치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3. 터한문화교류협회 한국어 과정

특히 2003년부터 시작된 터키인 한국어 교육은 터키 최초의 한국어 정식 교육기관으로서 올해 들어 18년째를 맞아 600명 이상의 졸업자를 배출하였는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터키 내의 한류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심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2007년부터 교민을 대상으로 터키어 교육은 2016년까지 10년 간 진행하기도 하였다. 양소영 언어센터 원장이 진행해 오고 있다.

4. 세종학당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정부는 2011년 터키 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미르 [İzmir](#)에 이어 2013년 부르사 [Bursa](#), 트라브존 [Trabzon](#), 이스탄불 아시아 지역에도 앙카라 대학교 부설 퇴메르 과정⁴⁾과 연계하여 세종학당 분원을 설치하였다.

한국어와 함께 한국 문화 수업 등 현지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센터로서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 중에 있다. 현재 사공심 초대 교장이 재직 중이다.

4 TÖMER : Türkçe Öğretim Merkezi , 터키어 교육 센터

5. 앙카라 대학교 *Ankara Üniversitesi* 한국어문학과

1989년 터키 최초로 세워진 한국어문학과로서 현재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한국 관련 기업과 전문 영역에서 졸업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2008년에 박사과정이 신설되어, 현재 학과장인 Mahmut Ertan GÖKMEN 교수와 유은미 교수가 재직 중이다.

6. 에르지예스 대학교 *Erciyes Üniversitesi* 한국어문학과

2000년도에 개설되어 2010년 9월에 박사과정이 신설되었다. 현재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과장인 Göksel Türközü교수와 유정숙 교수, 이정혜 교수, 조은숙 교수가 재직 중이다.

7. 보아지치 대학교 *Boğaziçi Üniversitesi*

터키 최고의 명문 대학인 보아지치 대학교에 2011년부터 한국어 과정이 신설 되었고, 현재 이화천 교수와 정미라 교수가 재직중이다. 역사학과에 홍현욱 교수가 재직 중이다.

8. 이스탄불 대학교 *İstanbul Üniversitesi* 한국어문학과

2016년 9월부터 시작되어 초기에 Goksel Turkozu교수, 정은경 교수, 양소영 교수로 시작되어 그 다음 해 Goksel Turkozu교수 자진 사퇴 이후 조홍운 교수, 손영은 교수, 황승엽 교수가 부임하여 2020년 현재 한국인 교수진만 5명이 재직 중이다.

9. 이스탄불 아이든 대학교 *İstanbul Aydın Üniversitesi*

2016년부터 한국어 과정이 신설되어 현재 이정숙 교수가 재직 중이다.



10. 연구자 목록

박원탁- 앙카라대학교 혁명학 박사 (1966), 한국 외국어대학교 터키 아제르바이잔어과 명예교수, 외대 아프리카문제 연구소장, 11대 국회의원, 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서재만**- 앙카라대학교 정치학 박사 (1973), 한터학회 회장; **이희수**- 이스탄불대학교 역사학 박사(1988),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최한우**- 하제테페대학교 비교문화 및 지역학 박사 (1989), 한동대교수,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주찬**- 이스탄불대학교 정치학 박사 (1991); **이희철**- 가지Gazi 대학교 박사 (1994), 前터키공사참사관; **연구석**- 앙카라대학교 언어학 박사 (1995), 한국외대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교수; **이난아**- 앙카라대학교 터키문학 박사 (1997), 한국외대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교수; **김대성**- 터키 하제테페대학교 역사학 박사 (1997), 한국 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터키어과 교수; **이용성**- 하제테페대학교 터키어 박사 (1998),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강사; **김종일**- 이스탄불대학교 역사학과 박사 (1999), 아세아연합신학대 중동사 교수; **오은정**- 국립하제테페대학교 터키 문학과 비교문학 박사 (1999), 우즈베키스탄 민속학 국가박사 (2014), 동덕여대 교수; **안선애**- 국립하제테페대학교 미술 대학원 회화과 박사 (2004), 글로벌 미술연구소 소장; **김성운**- 에게대학교 사회학 박사 (2005), 고려신학대학교 교수; **박노응**- 마르마라대학교 국제경제학 박사 (2005); **오종진**- 빌켄트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2006), 한국외대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교수; **박종이**- 중동공과대학교 재료공학 박사, 아틀름 대학교 교수 (2008); **정은경**- 이스탄불대학교 역사학과 박사 (2010),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이정혜**- 이스탄불대학교 역사학과 박사 (2010), 에르지예스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최정숙**- 마르마라대학교 교육학 박사 (2013); **양민지**- 에르지예스대학교 터키문학 박사 (2014)



04

한인사회의 제 단체들

1. 터키 한인회 총연합회

터키 한인회는 1989년 윤대우 초대 회장이 선출되어 현재 18대 한인회가 재임 중이다. 이즈미르 한인회는 2003년부터 지부회로 있다가 2009년에 한인회를 설립하였다.

앙카라 한인회는 2012년부터 설립되었고, 동남부 한인회는 2017년에 새롭게 개설되었다. 2017년 8월 14일 터키 한인회 총연합회가 설립되었고 총연합회 회장으로는 이스탄불 회장인 박용덕씨가 선출되었다.

2020년 현재 이스탄불한인회 회장 박용덕, 부회장 김현향**서기 겸임**, 부회장 김정호**사무총장 겸임**, 수석총무 정성은**재정 겸임**이 재임 중이다.

다음은 터키 한인회 역대회장이다.

윤대우**1-3대**, 최평화**4대**, 윤경웅**5-6대**, 최덕삼**7대**, 김성렬**8-9대**, 정지섭**9대**, 김상진**10대** 조규백**12-13대**, 김성렬**14대**, 박남희**15-16대**, 박용덕**17대-18대** 이스탄불 한인회장 및 재터키 총 한인회 연합회 회장, 2016-현재

이즈미르 한인회는 터키 한인회 이즈미르 지부의 지회장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김영기씨가 역임하였고 2007년부터 김재수 지회장이 역임하다가 2009년 5월에 정식 이즈미르 한인회를 구성하여 초대회장으로 김





대수씨가 선출되었다.

양카라 한인회는 2012년 설립되어 2020년 현재 유학생 50명 내외, 교민 120명이 있다.

남동부 한인회는 2017년 3월 27일 첫 한인회를 구성하고 초대회장으로 송창섭씨가 선출되었고 2019년 5월부터 이태연씨가 역임 중이다. 현재 약 7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2. 참전용사기념사업회

터키는 한국전에 참전한 16개 UN군 중 미국, 캐나다, 영국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1만5000명의 군대를 파견하였다.

1950년 10월 17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 때까지 2만 1212명의 병력을 파병하여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리 전투와 판문점 동북부 네바다 전투에서 큰 전공을 세웠다.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섬기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초대 회장으로는 박남희, 조규백, 윤대우씨가 역임하고 있다.

3. KOWIN코원 ;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한국정부 지원 단체로서 한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터키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 및 문화 교류 협력을 위해 결성되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이하 KOWIN)는 2001년 한국 여성가족부의 출범과 함께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민족 여성 인력 발굴과 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초대 회장 박남희씨와 윤은경, 그리고 현재 이송자 회장이 역임 중이다.

4. 기업인 연합회

2019년 2월 28일 1차 재터키 한국기업협회 총회가 열렸다. 협회장, 부협회장, 이사 6명, 감사 3명, 코디네이터 1명, 사무국 담당 1명으로 구성되었다. 터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위상을 세우고 회원사들 간의 정보 공유와 권익 보호, 협력과 친목을 위해 세워졌다. 회원사 간의 법무 지원 서비스, 정착지원 가이드, 호텔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5. OKTA ; Oversea Korean Trade Association

OKTA 이스탄불 지회는 2005년 초대 김성렬 지회장을 거쳐, 2015년 김주찬 지회장, 2017년 3대 정지섭 지회장을 포함한 글로벌 마케터 3명이었으나 현재 5명으로 증가하여 무역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찾아가는 상담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현재 자기사업체를 갖춘 24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OKTA 동유럽 CIS 지회장 대회 참여 및 전주대학교 대학생 연수 행사를 진행하여 차세대 육성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6. 이스탄불 한인교회

초대 조용성 목사^{1989 05-1992 11}, 2대 이승수 목사^{1992 11-1996 11}, 3대 최정호 목사^{1997 03-2000 02}, 4대 박경한 목사^{2000 07- 2010 07}, 5대 주정빈 목사^{2010 07-2016 04}, 6대 이석주 목사^{2016 08 -}

1986년 9월부터 김주찬 유학생 부부는 백두천 부부와 최덕삼 부부의 제안으로 국제유니온 교회에 출석하던 한인들과 함께 가정모임을 하기 시작했다. 이어 윤대우, 최평화¹⁹⁸⁷, 최덕삼, 김대균^{삼성지사장}, 백두천^{코트라관장}이 함께 참여하다가 1989년부터 조용성 목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것으로 정식 한인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7. 한인 카톨릭 교회

이스탄불 한인 카톨릭 공동체는 2007년 9월 고인현 사목에 의해 설립된 후 50명 내외의 인원이 산타마리아 드라페리스 성당과 프레스코 수도회 국제 성당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한국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에페스 평화 관상 기도의 집에서 에페소 성지사목과 함께 2017년 5월에 시작하여 모이고 있다. 평화센터는 2015년 12월에 시작되어 중동 평화난민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05

문화와 스포츠 교류

1970년에 유도 사범이 파견된 이후 1973년에 조수세 최초 터키 국가대표 사범과 1974년 한국 문화 예술인의 입국, 1985년 김두만 국가대표 사범의 활약이 있었다. 2002년 이스탄불에 위치한 터한문화교류협회가 설립되면서 한·일 월드컵 이후 양국간의 다양한 민간문화 교류 활동이 진행되었다. 현재 이스탄불^{2002.01}, 트라브존^{현재 폐쇄}, 메르신^{Mersin, 2014.11}, 아다나^{Adana} 지역에도 사설 문화원이 운영 중에 있다.

1. 지진 구호 봉사활동

1999년 터키에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2~3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재난에, 당시 금융위기를 겪었던 한국정부는 많은 금액을 원조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에 있는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이 터키를 위한 모금운동을 펼쳐 기

금을 전달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 활동기반을 둔 «한·터키 친선협회»가 터키와 민간차원의 문화교류 강화를 위해 설립 되었다. 초대회장으로 이시형 박사가, 사무총장으로 이희수 교수가 선출되었다.

또한 한국 교회 연합회에서는 모금한 기금을 통해 진양지였던 알로바 지역에 100세대 가건물과 문화센터를 설립하여 한국어와 문화교실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많은 의료 봉사팀의 방문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통역과 안내, 문화 센터 관리 등 교민들의 헌신적인 도움과 역할이 컸다.

2. 사단법인 터키한국 문화교류·교육·보건·예술·체육 협회 : 터한문화교류협회

2002년 설립된 양국 간의 문화교류 활동을 위해 터키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세워진 문화교류협회로서 회장 박용덕, 부회장 김현문, 총무 정성은씨가 재직 중이다. 2002년 최초로 터키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과 2007년 한인들을 대상으로 터키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언어 교육 및 도시 간 자매결연⁵⁾, 대학 간 협약⁶⁾, 양국 간의 경제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다. 2013년에는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2년 한인축구월드컵 대회를 위해 터키 문화부와 VISION LTD. 한국인 문화원^{사설}이 공동 주최한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방문단»의 한국 방문을 위한 기자회견이 터키 문화부 장관실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을 방문한 후 터키 문화부 장관실에서 보고회를 갖고 난 뒤 터키 문화부가 효과적인 업무 협조를 위하여 사단법인 설립을 제안하였고 터키 참전용사협회의 협력으로 사단법인 터키한국 문화교류·교육·보건·예술·체육 협회^{터한문화교류협회}

5) 평택시 와 테 키르 다시, 파주시 와 에스 키 세히 르시, 서울시 와 앙카라시, 부산시 와 이스탄불시, 성북구와 베이올루Beyoğlu, Istanbul 구청

6) 단국대학교 와 마르마라 대학교Marmara Univ., 한림 대학교 와 앙카라 대학교



가 세워지게 되었다.

한일 월드컵축구 이후 문화, 체육, 교육, 학술, 예술, 지방자치 단체간 교류, 대학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교류 활동을 진행하였고 터키 및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불가리아, 이집트, 한국, 터키 등 다양한 나라에서도 국제 학술, 예술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특히 2002년부터 시작된 터키인 한국어 교육은 양소영 한국인 문화원 부원장이 실시한 터키 최초의 한국어 정식 교육 기관으로서 올해 들어 18년째를 맞아 600명 이상의 졸업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시작된 한국인 대상 터키어 교육은 2016년까지 10년 간 진행되었다.

현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지자체 간 자매결연, 대학간 교류, 한국어 교육, 터키어 교육, 문화공연, 전시, 학술세미나, 학술전시, 패션쇼, 문학세미나, 태권도 한마당, 한-터 우정의 숲 조성, 경제교류, 여행객 사건·사고 지원, 한인사회 단결, 친한 인사 양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에 있다.

3. 한터 친선 «10월의 어느 멋진날» 음악콘서트

2009년 10월 31일 성 이레네 교회 박물관에서 이스탄불 시청, 이스탄불 총영사관, 터키한인회, 터한문화교류협회, 이스탄불 한국인협회의 공동 주최로 이스탄불 한인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성가대 단원 및 일반 한인들 45명과 이스탄불 시립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진행된 한터 친선 «10월의 어느 멋진날» 음악콘서트(지휘: 정재호)가 태풍이 몰아쳤던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참전 용사들을 비롯한 1천1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석하며 성공리에 마쳤다. 성 이레네 교회는 아리우스 이단 논쟁을 종식시키고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한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개최된 역사적인 곳이기도 하다.

이날 공연은 터키 교민들로만 구성된 최초의 음악회로서 공연 중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무대로 초청해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훈훈한 장면을 연출하며 양국간의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4. 주터키 한국문화원

주터키 한국문화원은 양국간의 문화교류 증진을 위하여 2011년 10월 13일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 설치되었고 터키 각지에서 한국관련 전시, 공연, 심포지움 및 세미나 등의 행사와 더불어 한국어, 한식, 태권도를 비롯해서 한복, K-POP, 서예, 국악 등 다양한 한국문화 관련 강좌를 통해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전시실, 공연장, 강의실, 세미나실, 도서관, 유학 상담실, 카페테리아, 태권도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시, 공연, 행사, 강좌, 한국 유학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한국문화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다. 현재 조동우 초대 문화원장이 재직 중이다.

5. 2013년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돌궐 및 오스만투르크 문화와 한국의 신라문화를 바탕으로 한-터 양국의 문명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문화의 쌍방향 교류를 통해 양국의 문화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실크로드로 이어진 터키 이스탄불과 경주를 잇는 신 실크로드를 탄생시킨다는 취지의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 행사가 2013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었다.

비잔틴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아야 소피아Ayasofya, 터키어로 성스러운 지혜»는 터키와 유럽의 역사를 대변해 온 상징적인 장소에서 개막식이 이루어졌다. 개막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국무총리 그리고 이상규 주터키 한국대사, 전태동 이스탄불 총영사, 박남희



터키 한인회장 등 주요 내·외빈, 터키 국민, 외국인 관광객 등 3,000여명이 참석해 역사적인 개막의 순간을 함께 했다.

식후행사로 펼쳐진 개막 축하공연은 한-터 합동공연단 60명이 출연해 한국과 터키의 우정을 담아내며 개막식 하이라이트를 장식했고, 양국 인사들과 관람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양국 언론과 이스탄불 주재 외신 등 200여명의 취재진들이 몰려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의 개막 소식을 전 세계로 타전했다.



«길, 만남 그리고 동행»이라는 주제로 신라를 비롯한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 문화가 한 자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8개 분야 **전시 공연 영상 체험 특별행사** 등 46개의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한국의 찬란한 전통문화와 IT 강국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는 «한국문화관»,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진수를 세계에 알릴 개막 축하연주회 «한국의 소리 길», 신라금관 등 국보급 유물을 전시하는 «한국문화재 특별전 **국립중앙박물관 주관**» 등이 마련되었다.

6. 한국전쟁 영화 «아일라»

2017년에 터키와 한국의 합작 영화인 «아일라Ayla»는 터키 자체에서 제작되어 상당히 큰 반향⁷⁾을 일으킨 한국전 관련 영화로서 한국전쟁에 참전 중인 터키군인이 고아로 남겨진 어린 소녀를 발견한 뒤 터키어로 «달ay»이라는 뜻의 «아일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군부대에서 키우게 되는 애기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0년 만인 2010년, 두 사람 이야기가 MBC 다큐멘터리 «아일라, 푸른 눈의 병사와 고아소녀»로 제작되었고,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술레이만의 사진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자료를 뒤져 아일라를 수소문했고 마침내 한때 아일라라는 이름으로 불린 김은자 씨를 찾아냈다. 2010년 서울 여의도 양카라공원에서 두 사람은 거의 60년 만에 재회했고, 서로 부둥켜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일라»를 연출한 잔 울카이Can Ulkay 감독은 이 다큐멘터리에 감동해 영화 제작을 결심했다고 한다.



2018년 6월 한국 개봉전 시사회에 이낙연 총리와 에르신 에르친Ersin Ercin 주한 터키대사를 비롯해 참전용사의 손녀인 데프네 아네트 예신 카라벤리씨와 제일린 샤르펠씨가 함께했다. 이상규 전 주터키 대사와 백상기 주한 터키대사관 고문도 자리했다. 아일라의 실존 인물인 김은자씨당시 74세는

7) 개봉 당시 5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관람, 역대 터키 영화 중 누적 관객 순위 6위



국내 거주 중으로 지난 2010년 고故 술레이만 딜빌리이Süleyman Dilbirliği 하
사2017년 12월 사망와 재회한 바 있다.

이낙연 총리는 영화 관람에 앞서 «보통 외교관 몇 사람 역할보다 더 큰 역할
을, 아일라의 아빠 노릇을 한 터키 군인이 했을 것»이라며 «인간애는 외교나 정
치, 국경을 뛰어넘는데 그것을 절절한 감동으로 깨닫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에르신 대사는 «아일라는 단순한 전쟁영화가 아니라 국가에 상관없이 사람
간의 사랑을 다룬 영화라고 언급했고 이 총리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감동
이 훨씬 더 큰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 총리는 «우리 한국은 터키를 비롯해 많은 나라의 크나큰 은혜를 입었다.
터키에서는 참 많은 젊은이가 한국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왔고 많은 사
람이 희생됐다.»고 말했다.

7. 스포츠

1970년에 유도사범이 파견된 이후 1973년에 조수세 최초 터키 국가 대
표 사범과 1974년 한국 문화 예술인의 입국, 1985년 김두만 국가대표 사
범의 활약이 있었다. 2002년 이스탄불에 위치한 터한문화교류협회가 설립
되면서 한일 월드컵 이후 양국 간의 다양한 민간 문화교류 활동이 진행되었
다. 그 외 트라브존에도 사설 문화원이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자체 폐쇄된 상
태이고 현재 이스탄불2002.01, 메르신Mersin, 2014.11, 아다나Adana에도 사설
문화원이 운영 중에 있다.

1) 유도

중앙일보 1970년 3월 4일자에 따르면 대한 유도회가 나주환 5단과 이
영 4단을 터키 스포츠 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파견하기로 결정했음이 나

타나 있다. 이는 한국의 스포츠가 최초로 터키에 진출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이다.

2) 태권도

조수세씨^{전 터키국가대표사범}가 1973년부터 1974년까지 터키 국가대표 사범으로 활동했었고 후에 그를 기념하는 기념우표까지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1975년부터 1981년까지 김정관 사범, 1980년대 초반에 이효주 사범이 활동하였다. 1985년부터 최근까지 김두만 사범이 터키 국가대표 품새 감독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태권도는 터키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각종 국제 대회에서 터키인들이 메달을 따오는 태권도 강국이 되었다.



김두만 사범

그 이후로 1985년에 입국한 김두만 사범^{전 터키국가대표 사범}이 이끄는 터키 태권도 국가대표팀은 1995년, 1997년, 1999년, 2001년 총 4차례에 걸쳐 유럽 태권도대회 품새부분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이에 한인들의 태권도 진출이 터키 현지인들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로 드러나게 되었다.

3) 태권도 한마당

2006년도에 터한문화교류협회 주최, 터키문화관광부, 터키 청소년체육부 이스탄불 지청, 주^駐터한국대사관, 한인회 후원 및 협조하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였다.

4) 한일 월드컵 3-4위전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3-4위전 경기를 치렀던 한국과 터키는 그 어

는 결승전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감동적인 경기를 치르게 된다. 관중들은 이날 한국전에서 한국을 위해 아낌없이 피를 흘려 주었던 참전용사들을 기억하며 터키국기를 흔들며 열렬한 응원을 보여주었다. 이날 터키는 40년만의 월드컵 결승 진출에서 한국을 이기고 3위를 차지하게 된다. 경기 후 양국의 선수들이 함께 손을 잡고 관중을 돌면서 인사했던 감동적인 장면도 연출되었다. 이를 계기로 터키인들은 한국에 대해 열렬하게 환호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됨과 동시에 한류 붐이 시작되게 되었다. 양국 간의 우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기억으로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5) 기타 스포츠

이을용 축구 선수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트라브존Trabzonspor Kulübü 구단에 입단하여 활동2002-2003했었다. 김연경 배구선수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페나르바체 SK⁸⁾ 팀에서 2차례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2018년부터는 엑자즈바시⁹⁾ 팀 소속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2018년 터키리그로 복귀한 김연경(뒷줄 왼쪽에서 3번째)은 2018 터키여자프로배구 스포르토토 챔피언스컵(슈퍼컵)에서 소속팀 엑자즈바시에게 우승컵을 선사했다.

8) Fenerbahçe Sports Club Women's Volleyball Department

9) Eczacıbaşı kadın voleybol takımı

터키 진출 한국기업들의 주요활동 성과

1. 한인 사업체의 발전

2000년 이후 교민들의 제조업 사업 분야는 사료, 금속, 장갑 공장, 봉재, 실공장 운영 등으로 진출하였으나 후에 대부분 폐쇄되는 경우가 많았다.

동국무역은 터키에 한국기업 최초로 봉재 공장을 운영한 회사이다. 1985년에 합작 투자하여 (주)코르타스를 설립하였다. 1988년에 두바이에서 근무하던 정지섭씨는 터키로 발령이 나게 되어 7-8명의 한국직원과 190명의 터키인들로 구성된 점퍼 생산 공장을 경영하였다. 1989년에 한국인 고액 급여와 직원들의 노동쟁의가 장기화되어 쟁의가 풀린 이후에도 운영이 어려워져 회사를 폐쇄하게 되었다.

교민들의 사업체 운영 경로는 주로 중동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터키 지사에 파견 받아서 근무하던 중 또는 현지 한인 회사에서 근무 이후 독립하여 개인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섬유업 분야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 왔는데 1990년 김주찬 사장은 조이 텍스틸 무역회사를 세우고 코오롱 제품을 터키에 판매하는 섬유 무역을 시작하였다. 정지섭 사장은 동국무역 직원으로 터키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1990년도에 이스탄불에 서울무역 회사를 설립하여 섬유 제품 수출을 통해 1994년에 연간 매출 5천만 불에 이르기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출상



을 받기도 하였다. 그 이후 조이 텍스틸과 서울무역에서의 근무 경험을 통해
기타 무역 회사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2. 제3대교 Yavuz Sultan Selim Köprüsü

제3대교는 2016년 8월 현대건설^{60%}과 SK건설^{40%}이 합작 시공하였는데, 이는 1973년 영국과 독일 건설사가 지은 제1교, 1988년 일본과 이탈리아 건설사가 지은 제2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동서양을 가르는 보스포러스^{Bosphorus} 해협의 다리 가운데 육지간 거리가 가장 먼 곳에 건설되었는데 2개의 주탑 높이만 하더라도 63빌딩^{250m}을 훌쩍 넘는 322m로 제1교와 제2교의 2배에 달한다.



이는 총연장 2,164m, 주경간^{주탑간 거리} 1,408m에 이르는 초대형 구조물로서 세계 건설사에서 최초 사장교-현수교 복합방식이라는 진기록을 남기고 있다. 총 3년 2개월, 연인원 100만 명 이상이 투입된 총길이 2164m, 주탑 높이 322m^{아파트 100층 높이} 규모의 대규모 공사로서 1000m 이상 대형 교량의 공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대폭 감축했으며, 공사기간 중 하루 평균 최대 1000명이 투입됐다.

사장교斜張橋는 사장케이블을 주탑에 바로 묶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방식이며 현수교懸垂橋는 주탑 사이를 잇는 현수케이블에 상판을 연결하는 방식인데 이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다. 또 다리 가운데로는 기차가 다닐 수 있게 진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복합방식이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제3대교는 사장교 규모로는 세계 1위, 현수교 규모 면에서도 세계 8위에 달하는 유례없는 《현수사장교》로 탄생하게 되며 공정 또한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한다. 현수교 부분은 현대건설이 2012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울산대교에 적용한 케이블 가설장비 신공법을 적용해 시공했다. 조립식 평행선 스트랜드공법PPWS으로 알려진 이 공법은 비용 및 공기 단축에 큰 기여를 했다. 보스포루스 제3대교의 시공을 통해 유럽 건설사들의 독무대였던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동서양을 연결한다는 점과 함께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터키에 세워졌다는 점에서 언젠가 부산에서 출발한 유라시아 횡단기차가 건너게 될 아시아의 서쪽 끝이자 유럽의 동쪽 관문으로서의 터키에 우리 건설사들이 한창 쌓아올리고 있는 세계 최대의 다리는 양국의 영원한 우정을 상징하는 듯하다.

3. 아브라시아 터널 Avrasya Tüneli

2016년 12월 22일 SK건설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 최초의 자동차 전용 복층터널인 터키 이스탄불의 보스포루스Bosphorus 해협 해저를 관통하는 길이 5.4km 복층 유라시아 해저터널을 개통했다.

2013년 1월 공사에 착공해 48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사업비 12억 4000만 달러가 투입돼 터키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이스탄불 현지에서 열린 터널 개통식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대





통령과 비날리 이을드름 [Binali Yıldırım](#) 총리, 최광철 SK건설 사장, 조운수 터키 주재 한국대사 등 양국 정부 및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해저 100m 터널을 통과해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잇는 아브라시아 터널 [Avrasya Tüneli](#)은 교통체증이 심한 이스탄불 도로 상황에 숨통을 트이게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스탄불은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도시다. 하지만 도시를 연결하는 교량은 3개뿐이고 운영이 자주 중단돼 교통이 많이 불편했다. 물론 지하철과 연락선이 있지만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다리를 선택한다. 유라시아 터널이 개통된 후 도로 상황이 달라졌다. 2시간 넘게 걸리던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축됐다고 한다.

4. 차낙칼레 1915교Çanakkale 1915 Köprüsü

현재 에게 해와 마르마라 해를 잇는 차낙칼레 해협Çanakkale Boğazı에는 현재 최장인 일본의 «아카시 해협 대교 明石海峡大橋, 1,991m»를 넘어서는 세계 최장의 현수교가 될 «차낙칼레 1915대교2023m»의 공사가 한창이다. 한국의 SK, 대림과 터키 측 리막Limak, 야피 머르케지Yapi Merkezi로 구성된 국제 컨소시엄이순신팀이 최첨단 현수교를 완벽하게 완공할 예정이다.

«차낙칼레 1915교»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다리이며, 숫자적으로도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데, 주탑의 높이는 318m¹⁰⁾로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길이는 2,023m로 개통이 예정된 2023년과는 터키 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

10) 3월 18일은 차낙칼레 현수교가 설립되는 장소인 갈리폴리Gallipoli에서 있었던 1차세계 대전 당시 연합군에 대해 터키군이 승리한 승전기념일이다.





표로 보는 터키 한인역사			
	태동기 1950~1988	도약기 1989 ~2012	성장기 2013~현재
1. 정부 관계	고아원 앙카라 학원 설립 1952 영원불망의 송덕비 1954 국교수립 1957, 앙카라 대사관 설립 1957.3 앙카라 한국 참전 용사 공원 조성 1973. 11 웅인 터키군 참전비 1974 여의도 앙카라공원 1977.5.1 이스탄불 총영사관 설립 1977.12.12	노무현 대통령 방문 2005 이스탄불 총영사관 재개설 2007. 1. 15 굴 대통령 방한 2010.6.14~16 앙카라 한국 문화원 설립 2011.10.13. 이명박 대통령 방문 2012	수원 앙카라학교 공원 2013.6.25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방한 2018.5.2.
2. 조직 기관	한글학교 1988 한인회,한인교회 1989	참전용사기념사업회1999 터한문화교류협회 2002 OKTA 2005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코원2011	기업인 연합회 2017
3. 경제 활동	병아리 감별사 1972 KOTRA 삼성전자 1984 대우무역상사 1985 한인식당과 여행사 개점 1986	동국무역 1985 섬유사업 1990 효성 1991 카스 1992 현대 1997 LG 2000 OKTA 2005 한인식품점 개점 2009	
4. 문화 교류	한국 문화 예술인 1974	한터친선협회 1999 터한문화교류협회 2002 터한문화교류협회 터기인 대상 한국어 과정 시작 2002 터한문화교류협회 한국인 대상 터키어 과정 시작 2007	이스탄불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2013. 9 영화 아일라 2017 아다나 사설 문화원 메르신 사설 문화원 2014.11
5. 스포 츠	유도 사범 파견 1970 태권도 조수세 감독 1973 김두만 사범1985	이을용 축구 선수 2002~2003 태권도한마당 2006 김연경 배구 선수 2011~ 현재	
6. 교육	유학생 백상기 1956 서재만 1966 이스탄불 한인 한글 학교 개교 1988	앙카라 대학교 1989 이즈미르 한글학교 1998 에르지예스대학교 2000 앙카라 한글학교 2004 세종학당 2011 보아지치 대학교 한국어 과정 2011	이스탄불대학교 2016 한인 유치원 2016

표로 보는 터키 한인역사

	태동기 1950-1988	도약기 1989 -2012	성장기 2013-현재
7. 학위 취득	박원탁 혁명학 박사 1966 서재만 정치학 박사 1973 이희수 역사학 박사 1988	최한우 비교문화 및 지역학 박사 1989 김주찬 정치학 박사 1991 연규석 언어학 박사 1995 이난아 터키문학 박사 1997 이용성 터키어 박사 1998 안선애 회화과 박사 2004	최정숙 마르마라대학교 박사 2013
8. 종교		한인 교회 1989 통일교 1990년대 초반 한인 카톨릭 성당 2007	이단 증가
9. 봉사		1999년 지진 구호 봉사 한인 심장 수술 환자 돕기 교회 바자회	
10. 교민	박재성 입국 1949 백상기 입국 1956 서재만 입국 1966 나주환, 이영 입국 1970 조수세 입국 1973 김두만 입국 1985	정지섭 산업자원부 장관상 1998 김성렬 외교부 장관상 1999 김성렬 대통령 표창장 2005, 국무총리 표창장 2009 조규백 국무총리상 2010 박용덕 민주평통 자문회의 대통령 표창장 2010, 외교부 장관상 2010 오수용 행정안전부 장관상 2010	김상진 민주평통 자문회의 산업자원부장관상 2013 박용덕 대통령 표창장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4 황규인 국토교통부 장관상 2017 김상진 대통령 표창장 2019
11. 성과			제3다리 2016 아브라시아 터널 2016 차낙칼레 대교 2023

터
키

한
인
사
회

